



“국가검진 꼭 받으세요”

글 김길원 의학담당 전문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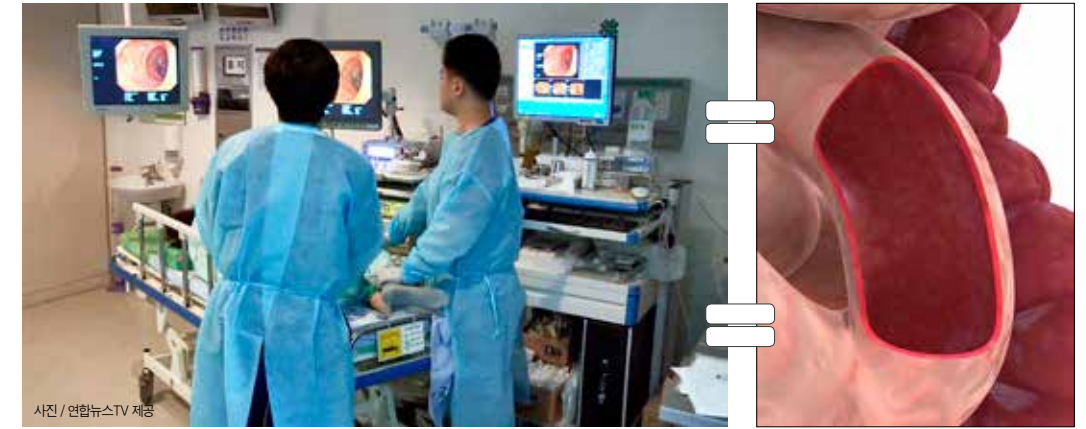


사진 / 연합뉴스TV 제공

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이 각각 2위,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는 질환이다. 이에 정부는 대장암 조기 진단을 위해 만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, 분변잠혈검사(대변 검사)를 받도록 하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시행 중이다.

만약 분변잠혈검사서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한다.

대장암 국가검진은 그동안 분변잠혈검사에 5천원, 추가 대장내시경 검사에 10만원 등 총비용에서 일부(10%)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지만, 2018년부터는 모두 무료로 바뀌었다.

하지만 이런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, 그동안 대장암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 10명 중 4명에 그치는 실정이다.

경희대 암병원 연구팀이 2005~2010년 사이 국가 암 검진 대상자 1천570만4천684명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실태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, 조사 기간에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40.4%(633만7천86명)에 불과했다.

특히 대변에 혈액이 묻어나오지를 확인하는 분변잠혈검사서 양성으로 판명된 53만4천661명 중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는 28.8%(15만3천678명)에 그쳤다.

결과적으로 볼 때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10명 중 7명은 대장내시경으로 이어지지 않아 대장암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. 전문가들은 분변잠혈검사서 양성이면 더 정

확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병변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. 대변을 직접 채취해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, 검사의 효용성이 더 큰 만큼 불편도 감수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.

문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은 사람 중에서도 2천명당 1명꼴로 '중간 대장암'이 발생한다는 점이다. 중간 대장암은 정상적인 대장내시경 검사 기간(6개월~5년)에 발생하는 암을 일컫는다.

이런 중간 대장암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1.8배 높은 편이다. 또 65세 미만보다 66~74세 1.8배, 75세 이상 3.1배 등으로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.

다만, 중간 대장암은 국가 암 검진 중 발견된 대

장암과 비교했을 때, 오른쪽 대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병기도 낮아 사망률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.

중간 대장암의 발생 원인으로는 내시경검사 시 병변을 못 보고 놓친 경우, 용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불완전 절제된 경우, 맹장까지의 내시경 진입 실패 또는 장 정결 불량에 따른 검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, 암이 새로 생겨 빨리 자란 경우 등이 꼽힌다.

경희대 암병원 이창균 교수는 양질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전 식사를 조절하고, 대장정결제를 잘 복용해 깨끗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. 철저한 대장내시경 질 관리가 이뤄져야 중간 대장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. ▼

